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11.01.(제3777)

#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 감사 예찬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 이해인 -



기 독 교 아현중앙교회  
대한감리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 임 목 사 권 오 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http://www.ajmc.or.kr)

#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23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입 레 송... 40장(1,3절) ...다 같 이 ※영 광 송..... 1장 .....다 같 이  
※예배의부름.....집 례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07:1)

※경 배 찬 송..... 21장 .....다 같 이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 감사  
의 달,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 독 문... 23번(시편 43편) ...다 같 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 도.....조상현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찬 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 이  
헌 금.....다 같 이

※봉 헌 송... 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목회·봉헌기도.....담임목사

성 찬 예 식.....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집 례 자

구 약 | 에 스 라 3:8-13

신 약 |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찬 양... 하나님 찬양하라... 찬 양 대  
증 언.....권오진 목사

『 감사한 달

감사 한달 』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복 의 선 언.....담임목사

※후 주.....반 주 자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첫단추기도회 START ON

-제 5 남선교회 주관 -

오후 2시

사회: 김진태 권사

조용한 기도 ..... 다 같이  
찬송 ..... 521장 ..... 다 같이  
기도 ..... 이재화 권사  
성경봉독 .. 히브리서 2장 1-4절 .. 노정훈 권사  
찬양 ..... 아멘 찬양대  
증언 ..... 오석만 목사

### 『큰 구원의 소중함』

합심기도 ..... 다 같이  
특송 ..... 회원 일동  
소식 ..... 권오진 목사  
축도 ..... 권오진 목사

다음 주 : 목장별 목장모임

### 젊은이예배

오후 2:00, 중예배당

## 지난 주 통계

| 예 배         |     | 교 회 학 교     |     |
|-------------|-----|-------------|-----|
| 주 일 1 부 예 배 | 37  | 영 아 부       | 11  |
| 주 일 2 부 예 배 | 270 | 유 치 부       | 16  |
| 주일실시간방송예배   | 47  | 유 초 등 부     | 21  |
| 목 장 모 임     | 208 | 중 · 고 등 부   | 30  |
| 수 요 성 서 연 구 | 66  | 청 년 부       | 17  |
| 수요일실시간방송예배  | 11  | 예 수 소 망 반   | 27  |
| 금 요 성 령 집 회 | 41  | 생 명 의 삶     | 13  |
| 금요일실시간방송예배  | 26  | 주 일 성 서 연 구 | 방학  |
| 합 계         | 706 | 합 계         | 135 |

| 현 금            |            |         |           |
|----------------|------------|---------|-----------|
| 주 일 현 금        | 1,511,000  | 감 사 현 금 | 1,780,000 |
| 교회학교현금         | 210,600    | 생 일 현 금 | 100,000   |
| 월 정 현 금        | 3,990,000  | 선 교 현 금 | 890,000   |
| 십 일 조          | 15,510,000 | 특 별 현 금 | 100,000   |
| 합계 24,091,600원 |            |         |           |

##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 수요성서연구

11월 4일(수)09:30-13:00/창천교회

##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월 - 화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수 - 목 민수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히브리서 강해  
오석만 목사

### 서대문지방 평신도성경학교

• 다음주기도 : 최미숙 권사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박지연 전도사

방 학

중예배당

## 예배 및 집회 안내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1 부 예 배     | 주 일 오전 7:00          | 대 예 배 당   |
| 2 부 예 배     | 주 일 오전 11:00         | 대 예 배 당   |
| 첫 단 추 기 도 회 | 첫째 주일 오후 2:00        | 대 예 배 당   |
| 새 벽 기 도 회   | 월-토 오전 5:30          | 중 예 배 당   |
| 수 요 성 서 연 구 | 수요일 오전 10:30         | 중 예 배 당   |
| 금 요 성 령 집 회 | 금요일 오후 8:00          | 중 예 배 당   |
| 장 년 부       | 주 일 오전 10:00         | 대 회 의 실   |
| 영 아 부       | 주 일 오전 11:00         | 영 아 부 실   |
| 유 치 부       | 주 일 오전 11:00         | 유 치 부 실   |
| 유 초 등 부     | 주 일 오전 11:00         | 유 초 등 부 실 |
| 중 고 등 부     | 주 일 오전 11:00         | 중 예 배 당   |
| 젊 은 이 예 배   | 주 일 오후 2:00          | 중 예 배 당   |
| 예 수 소 망 반   | 주 일 오전 8:10          | 중 예 배 당   |
| 목 장 모 임     | 매월 둘째, 넷째주<br>주일예배 후 | 목 장 별     |

## 11월 예배봉사인원

| 구 분  | 1부                     | 2부                            |
|------|------------------------|-------------------------------|
| 헌금위원 | 고순문 최경애                | 임수기 조미숙<br>추화순 최은주<br>강승균 장지희 |
| 안내위원 | 권효정                    |                               |
| 강단헌화 | (허종수 강명희)              |                               |
| 수납위원 | 김동수 김명훈                |                               |
| 통계위원 |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br>이명근 이성호 |                               |

## 지난 주일 증언

#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구 약 시 편 133:1-3

신 약 요 한 복 음 17:1-3

설 교 : 권 오 진 목사

###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바꾸는 선택

예전에 TV에서 아주 오랫동안 대중의 기억에 남아있던 유명한 광고 카피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가전제품 하나 잘 고르고 나면 10년 동안 집안일이 편리하고 마음이 든든하다는 내용이었지요. 참으로 공감이가는 멋진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10년의 편리함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복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을 좌우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며, 의학 기술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요새는 의학이 좋아져서 평균 수명이 80세, 90세를 넘어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의학이 발전한다 한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백 년을 채 살지 못하고 결국 죽음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력이 높은 사람이라도 이 죽음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계와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진정한 선물, 곧 ‘영생(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외우고 노래로 불러온 너무나도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음의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 영생은 ‘죽어서 가는 먼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영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성도님들에게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영생은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 눈물도 고통도 없이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단순히 ‘내가 죽은 뒤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과 영생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누는 대화의 형식을 빌려, 우리가 그동안 오해해 왔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생명의 진리들을 너무나 쉽고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어떤 분은 이 책을 기독교 고전인 C.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견줄 만큼 뛰어난 걸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닉 코민스키’라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닉은 자신 앞으로 전달된 의문의 초대장 한 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저녁 식사 초대장이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닉은 자신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신앙적인 의문과 고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예수님은 그 질문 하나하나에 따뜻하고 명확한 대답을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마지막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닉은 영생에 대해 질문하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영생이란 죽은 후에 천국이라는 장소에 들어가 영원히 끝없이 살아가는 것” 혹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영생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생은 어떤 멀리 있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며, 존재가 끝없이 지속되는 시간의 길이도 아닙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 자신이며, 나(예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영생은 저 멀리 있는 어떤 먼 나라나 장소가 아니

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자 인격적인 관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껍데기가 아무리 멀쩡해도 속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내 영혼에 진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책의 저자가 그렇게 담대하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해 주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머리로 공부해서 시험 치듯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환하게 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날마다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에서도 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생은 내가 숨을 거두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모셔 들이는 ‘바로 그 순간’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되는 현재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내 삶이 천국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렇다면 천국과 영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하고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영생은 그 나라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 현재의 사건인 것처럼, 천국도 현재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언어와 표정, 그리고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 미움과 욕심,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브랜드 옷을 입고 화려한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그 마음은 지옥과 같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삶이 피폐해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내 상황이 금방 바뀌지 않고 여전히 힘들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 3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가뭄으로 바짝 메마른 땅에 시원하고 신선한 이슬 단비가 내려 모든 풀과 나무를 살려내듯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의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와 기쁨이 샘솟듯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38장의 가사가 바로 이 고백 아닙니까?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얼굴 뵈기전에 멀리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비록 비좁고 고단한 초막집 같을지라도, 내 마음에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 영생을 누리는 삶: 말씀을 먹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을 누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먹고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 매일 끼니를 챙겨 먹듯, 영생을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을 누리는 성도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마음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고, 내 삶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몰아내며 날마다 새로운 용기를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생을 누리는 삶은 예수님의 영이시요,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가하면 영생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젊은 부자 관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진지하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어릴 적부터 계명도 잘 지켰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으며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근심하며 얼굴이 어두워져 슬그머

니 발길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에게 돈이나 건강, 명예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내 인생의 전체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 되고, 내가 가진 재물이나 건강, 시간과 직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로 잡힐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을 먹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여기에서’ 영생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위해 세워진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내어주신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단 한 번의 순간적인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먼 미래에 죽어서야 비로소 확인하는 희미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 그리고 감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초막집도 천국으로 만들어 가며,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복되고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 헌금

**십 일 조 헌금** (권오진 조고은) (손민승 방세미) (오석만 김선아) (송호준 황영진) 박지연 서지수 (권혁성 손양민) 김미광 (김철희 이후남) (김한중 김현숙) 박기순 (박법택 윤옥희) (배운덕 최영숙) (안대형 최미숙) (안홍순 양경화) (조상현 김현숙) (강용국 노복순) 권원자 (김병일 박경아) 김예린 김은순 (김정문 유은중) (류기운 송현숙) (박영식 정명자) (박재훈 김보라) (배덕천 김유임 성진) (백건호 박영옥 백수예) 성봉구 (손세운 광정민) 신영애 양명숙 양용자 (오성안 조삼순) 우철주 유은애 (이명렬 최성애) (이성호 강숙희) (이용배 김은미) (이용학 백현애) 이용환 이진경 (이활 김미영) 장균복 (장만섭 고순문) (장영재 강정희) 정옥자 (정현호 송미숙) (최영섭 서인숙)

**월 정 헌금** (조영익 태성희) (고영천 임선영) (권영만 최명희) 권정임 (김덕환 최현숙) (김영숙 유하동) (김의겸 여혜순) (김치년 홍주연) 류준혁 (박상근 차용분) 박선례 박정숙 박희 (송양근 조혜선) (염봉진 광동경) 윤인숙 윤희열 이명애 (이서구 김정희) 이선주 이정임 이화숙 (임현정 권소운) (조성규 권은정) 차정옥 (최영섭 서인숙) (홍준일 김현주)

## 감 사 헌 금

(오석만 김선아) :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석 나영임) :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영미 :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법택 윤옥희) :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황한규 : 조부모님의 이장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정희A : 하나님이 치료해주신 건강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자녀손들에게 짐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손 들 믿음의 삶과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이 나라 지켜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덕환 최현숙)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도현 :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선 :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김진숙 :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태환 임선희) :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옥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석순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송주영 : 모든 식구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송현숙 :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하시리라 믿으며 감사합니다.

신영애 :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심 감사드립니다.

(안현수 심수현 안예준) : 저희 가정을 위해 함께 예배해주시고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철주 :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순희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영호 : 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차정옥 : 에베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난주 : 자녀들 기도들어주시고 계획한 모든 일, 주님 앞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최영섭 :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홍정순 : 먼 여정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 일 헌 금** 손민승 김도현

**선 교 헌 금** 오혜리 이선주 이한나 임현정 총여선교회(선교동역교회 위클리프 태화샘솟는집)

**특 별 헌 금** 강단현화 (송재용 홍영기)

# 성도의 교제

## ■ 교회소식

- 첫단추기도회 : 오늘은 제 5남선교회 주관으로 드리며, 특송연습이 오후 1시 40분에 대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제46회 서대문지방 평신도성경학교 : 2일(월) ~ 5일(목), 창천교회에서 있으며, 3층 안내석에서 수료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스타렉스가 오전 9시와 저녁 7시에 출발합니다.  
(주제 : 이스라엘아 들으라, 강사 : 신진섭목사(현촌교회 담임), 오전반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 저녁반 월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특강 :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야고보서 영어성경읽기 (온라인 Zoom) 수강 안내  
기간 : 11월 10일부터 21주 과정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9 - 9:30  
11월 8일 (주일) 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 조고은 사모)
- 성경필사본 제출 : 필사본을 쓰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모임안내

- 아멘 찬양대 연습 : 오늘 오후 12시 50분,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제 5남선교회 월례회 : 오늘 오후 12시 40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 교우동정

- 감사 : 목장 말씀묵상나눔 사역을 위한 큐티집을 후원해 주신 서태희 장로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목회실 목회계획 세미나, 중고등부 야외예배를 후원해 주신 장계순 권사께 감사드립니다.

##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 11월 중 행사

- 세례예식 : 8일(주일) 오전 11시
- 목장모임 : 8일(주일), 22일(주일)
- 총목자모임 : 8일(주일)
- 추수감사 말씀축제 : 13일(금), 14일(토) 오후 7시, 15일(주일) 오후 2시
- 온세대예배 : 29일(주일) 오전 11시
- KOMKED와 함께 하는 미션콘서트 : 29일(주일) 오후 2시

## ■ 금요성령집회(11월 6일)

| 찬 | 양 | 기드온 찬양단                                            |
|---|---|----------------------------------------------------|
| 설 | 교 | “내게 있는 이것을<br>네게 주노니”<br>(사도행전 3:1-10)<br>권 오 진 목사 |

## ■ 주일아침예배(11월 8일)

|         |          |
|---------|----------|
| 대 표 기 도 | 김 수 미 장로 |
| 성 경 봉 독 | 김 재 성 집사 |

## ■ 주방봉사

- 이번 주 : 3초원
- 다음 주 : 4초원

##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 로 목 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 담 임 목 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 련 목 회 자 송호준
- 전 도 사 박지연
- 교 육 전 도 사 서지수

- English Ministry Pastor Abraham Napitupulu
- 소 속 목 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 가 지 휘 김정희 김병일
- 반 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